

## 복식에 있어서의 근대성의 의미

이 재 윤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Modernity in Costume

Jaeyoon Yi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투고일: 2010. 10. 14, 심사(수정)일: 2010. 11. 15, 게재확정일: 2010. 12. 20)

#### ABSTRACT

Modernity is commonly defined as a reflection of the features of modern society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West. As such, modernity includes involvement with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a changing world-view, and changing trends in equality, gender roles, a desire for "the new," consumption, distribution based on mass production, and rational reform in fashion and dress. First and foremost, however, modernity in costume has been driven by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industrial capitalism. But while modernity has popularly been regarded as some sort of universal standard, in fact the West and the other societies have vastly different, unique, and particular experiences with their own respective histories of modernization. For this reason, cultural changes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should be-indeed, must be-analyzed in the context of a country's own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rather than through the prism or strict adaptation of generalized Western concepts of modernization. Moreover, a "periodization" of the modernization of fashion and dress can be established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ty in costume.

Key words: modernity(근대성), modernity in costume(복식의 근대성),  
industrial capitalism(산업자본주의), periodization of modern times(근대 설정),  
historical context(역사적 맥락)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복식사의 연구 범위가 과거 고대사에 그 중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근대로 접근하게 되면서, 근대의 시기적 설정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근대의 존재를 당위시하며 서양의 근대에 해당하는 시기를 각국의 복식사에 적용시켜 그 시기적 특성을 근대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한국 복식사에서는 주로 근대를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로 설정하고, 이 시기에 나타난 복식 현상들을 연구한 경우가 다수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복식의 변화 양상 등 복식에 나타난 특성으로 근대의 시기를 연장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나, 여기서 설정된 근대에 대한 연대적 구분의 기준이, 근대 사회, 혹은 근대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개념과 치환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근대, 그리고 전근대와 탈(혹은 후기)근대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근대성, 복식에 있어서의 근대성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복식에 있어서의 근대성의 시기 설정에 있어서의 기준을 모색하고, 그 일반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먼저 근대와 근대성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근대성이 복식에 반영된 양상을 정리하여 복식에 있어서의 근대성의 의미를 규명한다. 서구 근대 사회의 지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이 그 역사적 맥락 내에서 복식으로 구체화된 양상을 범주화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을 복식에서의 근대성의 개념으로 제시한다. 일반적 근대의 개념은 서양의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복식의 근대성 역시 이에 기반하므로 서양 복식사에서 나타난 근대성 개념을 추출한다. 기존의 서양 복식에서의 근대성에 관련된 단행본 및 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로, 주로 미국 및 영국의 이론서들을 연구 자료로 하였다.

## II. 본론

### 1. 일반적 개념의 근대성과 근대의 시기 설정

근대[Modern times]란, 시대 개념, 가치 개념, 혹은 양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시대 개념으로는 넓게는 르네상스부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의 프랑스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을 거쳐 중세를 벗어나는 기간으로 서양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된 시대 구분이다.<sup>1)</sup>

근대성[Modernity]이란 서구 근대 사회가 낳았던 전반적인 문화 현상과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근대성은 근대 사회의 구분되는 속성, 혹은 사회적 특징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2)</sup> 그리고 근대화[Modernization]는 이러한 근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매우 급속도의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발달이었으며 서유럽에서의 봉건주의의 쇠퇴에 뒤따른 것이었다.<sup>3)</sup> 홀 등(Hall)<sup>4)</sup>은 이와 같은 근대 사회의 정의적 특성들을 봉건사회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철학적 변화들로 범주화하였는데, 새로운 정치적 세력, 대규모 생산과 소비, 전통적 사회질서의 쇠퇴와 세계관의 변화 등을 그 주요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블랙(Black)<sup>5)</sup>은 근대 사회의 5가지 측면으로 지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속성들을 제시하였다. 지적 측면으로는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통제의 증대가 근대화 과정의 핵심이며, 기존의 주관적이며, 비교적 불변적인 전통적 지식을 객관적 경험적 동적인 근대적 지식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정치적 측면으로는 국가권력의 집중과 기층으로의 침투, 법에 의한 통치 행정, 국가와 시민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과학적 기술적 혁명을 통한 노동의 기계화와 생산의 급격한 증대, 또 이에 따른 전문화, 경제활동의 확장, 사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재정 등 공공 사업에서의 국가 역할의 증가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체적, 폐쇄적이었던 전통 사회로부터 도시로의 사회적 이동, 기회 균등과 지도적 집단의 형성, 식자 능력의 보급, 예술의 사회 문제예의 관심 증대 등으로, 심리적 측면에서는 전통 사회에서 개인적 접

축이 가정과 공동체가 결부된 환경을 중심으로 했던 것에 반해, 근대화를 통해 가족, 지역적 공동체보다 큰 사회적 단위로 확대되어 국민적 공통 행동을 형성하는 경향이 출현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학자마다 범주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관적 범주가 근대성을 설명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근대성은 중세 사회에서 근대, 탈근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에서 학자간의 차이는 있으나, 위와 같은 범주들로 특성화 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서구 역사의 근대화 과정에서 추출된, 서구 사회 가치의 역사적 집적체이다. 근대의 시기 설정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르네상스 이후의 특징들, 혹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정치적 상황과 결부되어 논의되고는 있지만, 근대화의 시기는 각 범주들의 발달 속도에 따라 고대 그리스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sup>6)</sup>

## 2. 복식에서의 근대성의 개념

근대성 논의와 근대의 설정은 서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개념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복식에서의 근대성의 개념 역시 서양 복식에 대한 접근으로 전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복식과 근대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복식에서의 근대성의 개념에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 1) 복식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의 흐름

복식(혹은 패션)과 근대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sup>7)8)9)10)</sup> 복식의 근대성에 대한 논의는 미국, 영국 등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후의 패션을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시기로 설명하면서, 포스트모더니티의 성격 규정을 위해 모더니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탈(脫)’, 혹은 ‘후기(後期)’로 해석되는 포스트의 개념 규명을 위해서는 그 근저의 모더니티를 재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근대성에 관한 개념 정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근대성 자체에 대한 논의, 개념 규정보다는 포

스트모더니티와 비교하기 위한 대조구로서 간단히 언급하거나, 20세기 전반까지의 모든 패션의 흐름들을 근대화의 과정들로 제시하는 등 전환기적 시대 개념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복식 혹은 패션의 근대적 변화 요인을 주로 근대적 경제의 측면, 즉 대량 생산과 소비 중심의 산업적 자본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근대의 시기 역시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서양을 기반으로, 프랑스 혁명 및 산업 혁명을 거쳐 이러한 경제적 기반이 일반화되는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sup>11)</sup> 한편 국내에서는 복식의 근대성에 관한 단독적 연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 편이 있었으나,<sup>12)</sup> 그 후로 근대성 자체에 대한 논의는 서양 복식이나 한국 복식 연구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서양 패션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포스트모더니티와 패션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그 주가 되어왔기 때문이고, 한국 복식 연구에 있어서는 점차 연구 대상이 근대로 움직이는 시점에서, 조선시대 이후의 구체적 복식 현상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복식에 있어서의 근대성에 관한 개념적 정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2) 서양 복식에 나타난 근대성

#### (1) 복식과 근대성을 바라보는 관점

기존의 연구에서 서양 복식의 근대성은 주로 경제적 측면의 변화가 근대 사회에 미친 파급 효과를 바탕으로 설명된다. 대량 생산과 소비의 상품 경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패션 상품의 소비와 패션의 확산, 그리고 이로 파생되는 스타일들을 복식에서의 근대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삼고 있다.

윌슨(Wilson)<sup>13)</sup>은 근대성이 산업적 자본주의 내에서의 문화 생활의 변화적 특성을 향한 부단한 욕망이라는 점, 새로운 것[‘the new’]에 대한 욕망이 패션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윌슨의 시각에 따르면, 산업혁명은 기계시대의 시작을 맞이했고, 이는 인류사상 최초로 기계에 의해 변화와 지배의 시기가 도래한 것을 의미했다. 기계의 도움에 의한 빠른 변화, 상품의 생산 및 운송은 ‘거대한 산업의 중심에 있는 새로운 시민들을 전율시키며 공포에 빠뜨리기도 한 끊임없이 지속되는 모더니티의 움

직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배경이 되는 것은 도시 생활이었다. 또한 새롭고 상이한 계급들의 등장을 초래한 산업적 자본주의는 계급 간의 노동의 분화를 야기함과 동시에 노동의 성분화를 야기했다. 단순히 남성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먹고, 휴식을 취해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산업적 자본주의에서 여성의 역할이었던 것이다.<sup>14)</sup> 심지어 바나드(Barnard)은 이러한 맥락에서 패션의 기원이 산업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근대성에서 기원한다고 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우쇼우(Faurschou)에 따르면,<sup>15)</sup> 근대 사회에서의 상품 및 복식은 존재하는 구조에 따라 생산되는 소비재, 또는 “요구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needs)”로, ‘생산 지향의 국면’에 있었다. 자본주의 체계에 의해 생산되고 그 시스템에 의해 소비되는 상품으로서의 측면이 복식의 근대성의 일부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복식에 있어서 근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적 자본주의 내에서의 상품적 가치를 바탕으로 파생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관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운데에서, 근대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들, 즉 근대성이 복식에 반영된 양상들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 (2) 서양 복식에 있어서의 근대성

복식에서 나타나는 근대성은 서구의 근대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 사회의 가치들이 복식에 구체화된 특성들이며, 이러한 특성들은 서양 복식의 흐름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근대성의 범주와 각각의 특징들이 서양 복식에서 구체화된 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인 측면으로서는 신분기반의 사회의 탈피를 지향, 지각된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남성복의 평등화를 들 수 있다. 전체 안의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남성복은 균일화, 단순화와 물개성화의 양상을 보였다. 19세기는 복잡하고 현세적인 남성패션의 개념이 확립된 시기로, 우아함의 전통적 기준, ‘영국적’ 남성복장에 대한 향수적 광고, 빅토리아적 가치들이 연결

되면서 미분화된 회색과 검정이 주를 이루는 스타일로 구체화되었다.<sup>16)</sup>

경제적 측면은 복식의 근대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으로서, 산업 자본주의에 적합한 노동의 성분화를 촉진했다. 복식의 사회적 차이를 극대화시켜 남성성과 여성성의 수용가능한 형태를 확립시켰고, 패셔너블한 취향의 본질을 창조하였으며, 이를 전파하였다.<sup>17)</sup> 대량생산과 합성염료 등의 개발, 소매업과 제조업의 혁신적인 확장을 이루었다. 이는 복식의 대중화 및 소비 욕구 생산으로 확장된다.<sup>18)</sup>

사회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도시 중심의 소비생활과 취향의 전파와 형성은, 패션에 있어 변화, 새로움에 대한 욕구 생산<sup>19)</sup>, 패션 엘리트층을 등장시켰다. 패션은 대규모 전시 등을 통해 전파되고 대중화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1851년 이후 영국에서의 대규모 박람회 등을 통한 정규적인 대량 전시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sup>20)</sup> 파리의 소수의 패션 엘리트들은 스타일 변화의 자극이 되었으며, 체격과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대량생산으로 대중화되었다.<sup>21)</sup>

세계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19세기 여성복식에서의 위생 문제 제기, 복식개량운동, 여성 복식관의 확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관은 복식의 착용 방식에 있어 이성적 사고를 촉진하였으며, 건강과 위생개념을 고려한 여성의 복장, 코르셋에서의 탈피, 바지의 착용 등 복식개량운동으로 이어진다.<sup>22)</sup>

서양 복식의 역사를 볼 때, 근대 사회의 특징이 복식에 있어서의 근대적 전이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근대화의 일부였으며, 그 자체가 근대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복식에 있어, 산업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측면은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여, 서양 복식에서의 근대의 시기 설정은 산업자본주의 시기로까지 유추될 수 있는 것이다.

## (3) 복식에서의 근대, 그 시기 설정

복식에서의 근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근대 사회의 어떠한 측면이 복식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한 개념

들이 복식에 일반화된 시점이 언제인가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근대화(modernization)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대화는 사회와 경제 분야에서 근대성이 실행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근대의 시기 설정은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근대성의 태동기부터 산업 자본주의라는 물적 토대의 확립과 그 안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 일반화, 완성되는 모든 시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버먼(Berman)은<sup>23)</sup> 근대성의 개념이 일반 대중에게 확산된 정도로서 구분하고 있다. 근대의 시작을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의 시기로 상정하고 세 단계로 구분하여, 근대의 경험 시작 단계(근대의 대중이라는 감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 근대성의 의식적 이해 단계(1790년대의 프랑스 혁명기부터 19세기까지, 근대적 세계에서의 삶의 경험이라는 것에 대한 명쾌한 사고), 근대성의 보편화(20세기, 모더니티의 전세계적 문화가 사고와 예술에서 발현)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근대화의 시기 설정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근대적 사고의 도입에서부터 보편화라는 근대성의 적용 정도로 근대를 접근한다는 점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 자본주의는 복식의 근대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이에 윌슨과 파우쇼우는 근대성의 시작을 산업 자본주의의 발생으로 설정하였다.<sup>24)</sup> 산업 자본주의가 근대성에 미친 영향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본다는 관점이다. 다만, 윌슨은 르네상스를 근대성의 시작으로 제시하였으나, 버먼의 근대화 단계의 이론을 따르자면, 이는 '속물들의 세속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이었고, 역동적이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일상으로 점유되어가는 시기였으나, 결국 패션과 근대성이 지각된 것은 산업혁명이 되어서였다.<sup>25)</sup> 즉, 원숙한 산업혁명을 거친 산업 자본주의에서 근대성이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근대라는 시기 설정의 근거가 된다.

반면 상품으로서의 근대적 복식의 성격은 근대성과 포스트모더니티와의 구분을 가능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혼돈스럽고, 파편화된, 규명하기 힘든 패션상품의 성격은 포스트모더니티로 이행해 가는 특징으로 해석된다.<sup>26)</sup> 근대에서 출현한 '새로움에 대

한 욕망'이라는 근대적 특징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절충적 성격을 띠면서, 스타일의 끊임없는 변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의 구분 기준을 제시한다.<sup>27)</sup> 근대 사회에서 생산 지향의 국면에 있었던 상품은 소비 지향의 국면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간다.<sup>28)</sup> 바나드가 지적하듯,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모더니티의 평론이며,<sup>29)</sup> 근대성의 연장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 3) 복식에서의 근대성 개념의 적용 및 한계-한국 복식의 예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적 산업화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 의상을 입고 있다.<sup>30)</sup> 그리고 근대화의 기준은 마치 고유복식을 버리고 이 고유복식을 버리고 서양식 의복을 따르는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성의 개념이 서양의 특정한 역사적 변화를 바탕으로 도출된 특성이므로, 이 개념을 동일한 역사적 경험이 없는 사회에 대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 복식에서의 예를 통해 근대성 개념의 적용과 그 한계를 논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라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외국 문물에 문호를 개방하는 19세기 후반부터 일제강점기까지로, 한국에서의 근대성의 발로가 구성되는 시기로 해석되어 왔다.<sup>31)32)</sup>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시대구분이 한국에서의 근대성의 대두와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는 다른 비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근대는 문명화의 시기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로 이는 근대화 이론들이 비판받는 지점인데, 이는 다시 말해 서양 문명이 도입되기 전의 문명이 뭔가 열등하고, 개선되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sup>33)</sup> 복식과 근대성을 다룬 한국의 연구에서도 근대화라는 것이 모방을 통한 '문명화의 과정'으로서 해석되기도 하였다.<sup>34)</sup> 그러나 이와 같은 대입식 사고는 한국 복식에서의 근대성을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역사적, 정황적으로 한국과 서구는 사회적, 문화

적, 경제적 관습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19세기의 한반도에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조선이 약 500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를 '근대 이전'의 사회라고 서술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미문명화된' 사회라고 칭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한국의 복식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는 서양 복식에서의 근대화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서양 복식에서의 근대성의 범주들로 한국 복식에서의 근대성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복식의 단순화와 평등화는 한국 복식에서도 일어났는데, 649년 신라에서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유지되어 왔던 유교 중심의 관복제도는 직급의 상화와 신분을 구분해 주는 것이자, 세계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9세기, 문호를 개방한 후 고종은 스스로 관복제도를 개정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두루마기를 입도록 하였다.<sup>35)</sup> 또한 1895년 군복을 서양복으로 개정하고, 1899년에는 문관의 관복제도 역시 영국의 제도를 모델로 서양복화하였다. 관리들은 공식석상에서 양복을, 일상생활에서 고유복식을 입었다. 이러한 개혁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변화와 근대 국가로의 이행이라는 의지에 의해 추진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최초의 양복점이 1902년 서울에 문을 열고, 사람들은 공장제 직물들을 고유 복식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도 서양의 패션 산업의 구조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한국 복식의 스타일의 측면에서는 서양 복식으로의 현저한 변화를 보였지만, 한국의 산업 구조는 서구의 근대성과는 같은 구조로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일례로 한국의 기성복 산업은 197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대량생산체제를 바탕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대규모 생산을 바탕으로 제작되지 않았으며, 소규모 양장점 등을 통해 공급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때까지의 한국의 복식은 산업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복식의 근대성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산업 자본주의라는 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생산에 기반한 새로움에 대한 추구라는 특성도

추출해 내기 어렵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에 따른 남녀의 성분화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복식에서 서양 복식과 새로운 스타일의 수용 정도로 가시화 되었다. 치마의 길이를 무릎길이로 올린다는지, 1890년대 고관 부인들이나 유학생들로부터 시작한 양복의 착용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로저스<sup>36)</sup>가 지적하였듯이, 혁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확산된다는 측면은 한국 복식의 변화에서도 적용된다. 혁신의 초기 수용자들은 교육받고, 지식 수준이 높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등의 특성은 새로운 스타일을 수용하는 한국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한국 복식에서 가장 가시적 혁신 요소는 서양 복식이었으며, 남성,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 이를 먼저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점차 일상복에도 적용되어 바지와 저고리가 팬츠와 셔츠로 대체되고, 혼합된 양식의 고무신이 유행하게 되었다.

세계관의 변화의 측면에서 여성 복식에 있어 건강과 기능성의 개념이 대두된 것을 들 수 있다. 가슴 위로 조여 맨 풀치마는 서구식 여학교 등이나 여성 단체 등을 통하여 어깨끈을 단 치마로 바꾸도록 하였고, 내외용 쓰개는 검정 양산으로 대체되었다가,<sup>37)</sup> 소실되었다. 세계관의 변화 측면에서 또 논의될 것이 단발령이다. 효를 중시하는 한국에서, 자신의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효를 지켜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태도였다.<sup>38)</sup> 이런 의미에서 1895년의 고종의 단발령은 스타일의 변화에 앞서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전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들은 한국 복식에서의 근대성을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서양식 스타일을 도입하는 것은 큰 변화였으나, 기존 연구에서 한국 복식의 근대성을 지적한 경우처럼 단순한 모방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특정한 목적을 지각하면서 자발적인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한 자극 요인은 서양 스타일이었으나, 자가 발전적 추진력으로 이를 걸러내었다. 한국에서의 복식의 근대성은 서양 복식에서의 근대성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외래 스타일의 도입, 고유복식의 쇠퇴, 고유 양식과 서구양식의 혼합, 새로운 가치관의 도입 등 또 다른

부분의 특징들을 보여준다. 또한 대량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구조 등 서양 복식의 근대성과는 구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근대의 설정은 단순히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라기보다는 이러한 근대 사회적 조건들이 산업적으로, 의식적으로 갖추어지는 1970년대 이후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구의 근대성의 개념으로 이외의 사회적 특성들을 설명하는 것은 큰 한계점을 지닌다. 서양의 역사적 경험인 근대는 서양 문화를 설명하는 좋은 틀이지만,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서양 사회의 맥락에서 파생된 근대성의 개념을 서양 이외의 복식사에 대입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블랙의 근대화 이론이 양적 기준으로 근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거나, 서구사회의 가치를 전통과 근대를 단절하는 진보의 기준으로써 비유럽 각국의 근대화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비서구에 관한 문화 연구시, 관습적인 시대의 구분이 지니는 맹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정 시기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그 사회 내에서 시기적 특징들이 구성되는 방식을 먼저 연구한 후, 복식 등 세부적인 문화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근대성의 개념이 적용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문화의 역사를 바탕으로 근대성을 재설정하고, 시기를 설정하고자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III. 결론 및 제언

근대성은 근대 사회의 특징으로, 인류의 보편적 경험이라기보다는 서양의 근대 사회로의 역사적 전개를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관적 범주에서 서양 복식에서의 근대성의 의미를 관찰하면, 평등화, 성성의 확립, 새로움의 추구, 대량생산을 바탕으로 한 소비와 전파, 이성적 복식개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복식의 근대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산업 자본주의라는 근대 사회의 경제적 측면이다.

복식에서의 근대성을 서양 근대사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동일한 역사적 맥락을 갖지 않은 서양 이외의 복식사에서 복식의 근대성을 논의하는 경우, 서양 복식에서의 근대성의 개념을 무작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해당 문화의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근대성 도출과 근대화의 시기의 재설정이라는 방식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근대의 특수한 성격, 즉, 근대성의 개념과 서양화라는 개념이 구시대, 전통이라는 개념과 대치되면서 근대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갔다는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이 근대 사회의 특징과 함께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비서구권의 복식사의 근대 연구에 있어서, 관습적인 근대 설정을 반추하고, 각 문화권의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근대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선행하고, 각 해당 문화의 특수한 맥락에서 복식의 근대성을 조망하고, 근대성 개념을 도출시켜 문화권별 근대성의 개념의 일반화로 확장시키는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근대성 뿐 아니라, 포스트모더니티로 연장된 연구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박지향 (2009). *일그러진 근대*. 서울: 푸른 역사, p. 28.
- 2) Hall, S. (1995).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Cambridge, UK: Polity Press, p. 8.
- 3) *Ibid.*, p. 3.
- 4) *Ibid.*, p. 8.
- 5) Black, C. E. & Wilson, W. (1966). *The Dynamics of Modernization: a Study in Comparative History* (1st ed.). New York: Harper & Row.
- 6) Hall, *op. cit.*, p. 10.
- 7) Barnard, M.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 8) Breward, C. & Evans, C. (1995). *Fashion and Modernity*. Oxford: New York: Berg.
- 9) Breward, C. (1995). *The Culture of Fashion: A New History of Fashionable Dress. Studies in Design and Material Culture*.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Distributed exclusively in the USA and Canada by St. Martin's Press.
- 10) Wilson, E. (2003).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Rev.ed.)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11) *Ibid.*, p. 60.
- 12) 김윤희 (1996). 복식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복식*, 30, pp. 127-138.

- 13) Wilson, *op. cit.*, p. 63.
- 14) Barnard, *op. cit.*, p. 160.
- 15) Faurschou, G. (1988). Fashion and the Cultural Logic of Postmodernity, in *Body Invaders: Sexuality and the Postmodern Condition*, ed. A. and Kroker Kroker, M. Basingstoke: Macmillan, p. 80.
- 16) Breward, *op. cit.*, pp. 176-178.
- 17) *Ibid.*, p. 147.
- 18) *Ibid.*, p. 162.
- 19) Wilson, *op. cit.*, p. 63.
- 20) Breward, *op. cit.*, p. 16.
- 21) Fairservis, W. A. (1971). *Costumes of the East*. Riverside, Conn.: Chatham Press: distributed by Viking Press, NewYork, pp. 16-17.
- 22) Beetham, M. & Boardman, K. (2001). *Victorian Women's Magazines: An Anthology*.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Distributed exclusively in the U.S.A. by Palgrave.
- 23) Berman, M. (1988). The Experience of Modernity, in *Design after Modernism: Beyond the Object*, ed. John Thackara. New York: Thames and Hudson, p. 17.
- 24) Barnard, *op. cit.*, p. 147.
- 25) Wilson, *op. cit.*, p. 60.
- 26) Faurschou, *op. cit.*, p. 79.
- 27) Wilson, *op. cit.*, p. 63.
- 28) Barnard, *op. cit.*, p. 160.
- 29) *Ibid.*, p. 147.
- 30) Fairservis, *op. cit.*, p. 14.
- 31) Mason, E. S. & Harvard University,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80).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45-1975*. Cambridge, Mass.: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pp. 95-96.
- 32) 이민수, 윤남한, 이원섭 편 (1981). *한국의 근대사상*. 서울: 삼성. pp. 13-16.
- 33) Williams, R. (1976).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74. (qtd. in Hall, p. 16)
- 34) Boyne, R. & Rattansi, A. (1990). *Postmodernism and Society(Communications and Culture)*.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Macmillan, pp. 127-130.
- 35) 문화관광부, 우리옷2000년편찬위원회 (2001). *우리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p. 120.
- 36) Everett M. Rogers (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4<sup>th</sup> ed. New York: Free Press, p. 269.
- 37) 문화관광부. *앞의 책*, p. 132.
- 38)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孝之始也” 소학 효행편.